



## 학회소식

### 유럽헌법학회(회장 전학선 교수)

유럽헌법학회(회장 전학선 교수) 지난 2019년 12월 14일(토) 13:30~18:00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관 101호에서 『글로벌 규범환경의 변화와 법제과제』이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제63회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발표된 주제와 발표자는 다음과 같다.

- 공공부분평등의무(PSED)에 관한 영국 법제 및 판례분석과 시사점: 장민영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 브렉시트의 헌법적 쟁점과 전망: 김연식 교수 (성신여대)
- 유럽 행정절차법 제정논의와 시사점: 박재윤 교수 (한국외대)
- 민간기구의 초국가적 영향력 행사에 대한 규제방안: 권채리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 한국가족법학회(회장 문흥안 교수)

한국가족법학회(회장 문흥안 교수)는 전북대 법학연구소(소장 김태명)와 함께 지난 12월 13일 오후 1시 전주시 전북대

진수당 351호에서 ‘가족법의 최근 쟁점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윤진수(사법연수원 9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친족법에서의 형식과 실질-친생추정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하였다.

이어 곽민희 숙명여대 법대 교수가 ‘가족법상 법률행위와 의사능력’을, 박근웅 부산대 로스쿨 교수가 ‘가분채권의 상속’을, 김민지 법무부 연구위원이 ‘현행 가족 개념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 대한변협-한국형사소송법학회, 공동 학술대회 개최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형사소송법학회가 형사사법 발전을 위한 협력을 약속하고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지난 12월 20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 변호사)는 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이상원 교수)와 대한변협회관 대회의실에서 형사사법의 절차적 정의를 통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수호와 한국 형사사법 발전을 위한 공동 연구 및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형사소송

법의 개정 방향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대한변협은 “이번 학술대회는 국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형사사법 관련 법안들을 수사 부분과 공판(증거) 부

분의 두 세션으로 나눠 각계의 찬반 의견을 청취하고 국민의 권리와 인권이 보장되는 바람직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 동정

### 정태윤 교수(이화여자대학교 법전원/민사법학)

한국민사법학회는 최근 이화여대 법학관 231호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정태윤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임기는 1년이다.

정 신임 회장은 ‘민법 시행 60주년을 맞아 우리 민법의 시행과정상 공과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라며 “오는 9월 19일 중국 심양에서 열리는 ‘제10회 동아시아 민법 국제학술회의’도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신임 회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불법행위법과 부당이득법 분야 연구의 권위자로서 한국비교사법학회 부회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 조소영 교수(부산대학교 법전원/헌법학)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소영 교수가 공법학계 최초 여성학회장으로 취임했다. 부산대 조소영 교수는 지난 12월 20일 오후 부산 해운대그랜드호텔에서 열린 ‘한국비교공법학회 제97회 학술대회·정기총회’에서 제16대 신임 학회장에 취임했다. 조 신임 회장은 전국 규모 공법학회 회장으로 취임하게 된 첫 여성학자다. 그는 앞으로 1년 동안 한국비교공법학회를 주축으로 국내외 공법 관련 학술 활동을 주도한다. 연세대에서 헌법학을 전공하고 2001년 박사학위를 취득한 조 교수는 2004년부터 부산대 법학과에 재직하고 있다. 그는 헌법학에서 언론법·방송법·선거법·정당법 등 영역으로 연구를 확장했다.